

올림픽으로 인해 영국 복권기금의 배분처 쟁점화

January 16, The Art Newspaper

영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주요 기금인 HLF(복권기금)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올해 3억3천만 파운드(약6천억 원)에 해당되는 복권 재정이 2008년에는 거의 40%가 감소한 2억 파운드(약 3천6백억 원)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소 원인으로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새로운 복권을 발행 할 예정이며, 회계제도의 변화로 인해 소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부과금 1천5백만 파운드(270억 원)가 줄어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몇몇 계획이 연기됨으로써 복권기금은 프로젝트 기금을 일 년 수입보다 많이 지원해 왔지만 수입 감소로 인하여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 · 교육 · 환경 · 예술 · 스포츠 · 문화유산 · 자선 사업 등으로 나누어 각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배분 방식에 변화가 일 것이며 올림픽을 위해 스포츠 관련 단체가 보다 많은 기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교육 연구에 대해 기금 선정이 된 달라스

January 8, Opinion Journal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에 대해 20개의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달라스(Dallas)가 1백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예술기금에서 영향력이 큰 월리스재단(The Wallace Foundation)은 달라스가 교육, 예술,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술 경험을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기금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달라스 시 관계자는 "우리 도시가 기금을 받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는 1백6천만 달러의 예산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십만 명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과정을 제공한 50개 이상의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물관 관람

January 9, The Guardian

미술관 방문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비행 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런던에 있는 길드홀 미술관 관람(약 40분) 전후를 비교하자 스트레스 수치가 4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같은 정도의 수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5시간이 필요하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인젤라는 점심시간에 아홉달고 조용한 환경에서의 짧은 휴식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예술박물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에 채용된 한국인 큐레이터

January 11, Opinion Journal

미국 내 한미 지역 공동체의 활동 및 한국 예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인식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예술박물관이 한국 예술과 관련하여 큐레이터를 최초로 고용했다. 과거 뉴욕, 브록클린 박물관의 큐레이터로도 일했던 36세의 우현수 씨는 미국 내에서 몇 명 안 되는, 한국 예술을 전담하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한국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박물관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공동체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은 중국 예술 관련 큐레이터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아시아예술부분이 확대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제공하는 미국 및 유럽의 큐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들의 장관급 회담

December 22, Kenya Times

케냐국제회의센터에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모여 5번째 문화관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문화, 통합 그리고 아프리카 르네상스' 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 및 문화에 미치고 있는 세계화의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열렸다. 이번 회의는 AU(Africa Union, 아프리카연합) 국가들이 문화 관련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접근 방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의는 1993년 베닌(Benin)에서 개최된 것을 마지막으로 12년 만에 개최되었는데 그 동안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목격해 왔으며, OAU(Organization of Africa Unity, 아프리카통일기구)에서 AU(Africa Union, 아프리카연합)로의 변화 역시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재평가하고, 고유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U의 첫 번째 회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U의 중요한 역할은 아프리카의 경제 · 사회 · 문화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목표를 전략적 계획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한 AU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유산, 다양한 문화, 가치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공장지대에 문을 연 러시아 최대 규모 개인 전시실

December 22, The Art Newspaper

러시아의 유명 미술품 딜러 알렉산더 아쿱 그가 모스크바 중심지의 황폐한 공장지대에 이색적인 현대 미술관을 오픈하여 많은 예술인들과 부유층, 미술수집가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렉산더 아쿱은 1990년 모스크바에 러시아 최초의 개인 미술전시관 'Aidan'을 설립한 이후 지난 수년간 많은 개인 전시공간을 오픈하였다. 그 중 특히 1,000평 남짓한 공간을 확보한 이번 갤러리는 그의 열정이 가득 담긴 야심작으로, 러시아에서는 가장 큰 개인 전시공간이다. 그의 대규모 전시회들이 그동안 주로 국가 소유 갤러리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아쿱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라며 부정 행위와 간섭을 일삼는 정부관리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쿱갤러리(Yakut Gallery)는 모스크바 중심의 커스키 기차역 뒤 20세기 초에 건립된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갤러리에 도달하기까지 방문객들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다른 대부분의 모스크바의 갤러리들이 고급상품 시장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광경이다.